

망나니 공주처럼

이금이 창작동화 | 고정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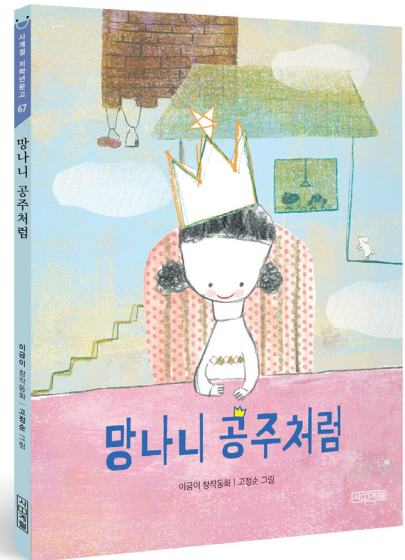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학년 및 단원:

1~3학년 국어, 독서

주제어: #나다움 #성인지감수성 #나 #고정관념

작 성: 상주 상영초등학교 오은경 선생님



■ 학습 목표

공주와 왕자라는 낱말에서 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자. 또 이런 편견 때문에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남자라는 이유로 내가 잘하는 것은 가려지고 잘 못하는 것은 강요받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 이 책 속 인물들이 잘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잘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갈 때의 즐거움을 느끼는 놀이를 함께해 본다.

■ 들어가며

공주와 왕자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무너뜨리는 작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깊은 곳에서는 공주와 왕자로 대표되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 앵두 공주는 옛이야기에 나오는 ‘망나니 공주처럼’ 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아이들은 앵두 공주를 닮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보통 아이 자두는 ‘앵두 공주처럼’ 되기를 강요받았지만 ‘망나니 공주’를 닮고 싶어 한다. 망나니 공주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공주답다, 왕자답다, 여자답다, 남자답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럼 ‘나는 어떤 아이일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어른들 속에 단단히 박혀 있는 고정된 성 의식 때문에 아이들마저 자기들도 모르게 갖게 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말랑말랑하게 바꿀 수 있는 책이다.

■ 수업 계획

| 단계 | 활동 내용 | 총 6차시 |
|-------|---|-------|
| 독서 준비 | -공주처럼 해야지, 왕자처럼 해야지 -망나니 공주 상상하기 | 1차시 |
| 독서 | -선생님이 들려주는 망나니 공주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망나니 공주 이야기 | 1차시 |
| | -자두 할머니가 들려 주는 망나니 공주 이야기 | 1차시 |
| | -망나니 공주와 왕자로 움직이는 조각상 만들기 | 1차시 |
| 독서 후 | -망나니 공주는 어떤 왕이 되었을까? -내가 잘하는 것 찾기 -공통점 찾기 놀이 하기 | 2차시 |

독서 준비

1. 공주처럼 해야지, 왕자처럼 해야지

1) “공주처럼 ~해야지”, “왕자처럼 ~해야지” 문장을 채워 보자. 이때 남학생들에게 공주 문장을 만들게 하고, 여학생들에게는 왕자 문장을 만들게 해 봐도 좋다. 교사가 예를 들어 주면 쉽게 만들 것이다.

공주처럼 _____ 해야지.

왕자처럼 _____ 해야지.

2) 만든 문장을 칠판에 적어 두고 그 문장 가운데 직접 행동에 옮겨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행동해 보자. 예를 들어 “공주처럼 얇전하게 걸어야지.”가 있다면 같이 그 말처럼 걷는 게 어떤 건지 떠올리며 걸어 본다.

3) 완성한 문장을 간단하게 실천해 보고, 이걸 정말 ‘공주라면 해야 할 행동’이라고 느낀 것을 한 가지씩 정하게 한다. 4~5명이 모여서 동시에 각자가 정한 행동을 반복해 표현한다. 약 10~20초 정도 모두가 동시에 ‘공주다운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때 소리를 내도 된다. ‘왕자다운 행동’도 해 본다.

4) 이런 공주나 왕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있다면 왜 되고 싶은지, 없다면 왜 되고 싶지 않은지 까닭을 이야기 나눈다.

2. 망나니 공주 상상하기

1) 이번에 함께 읽을 책 제목을 알려 준다. ‘망나니’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말과 행동이 몹시 막돼 먹고 나쁜 것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뜻을 가르쳐주고 그렇다면 망나니 공주는 어떤 공주이겠는지 상상해 보게 한다.

2) 『망나니 공주처럼』이라는 제목 뒤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 상상해 본다. 생각나는 대로 외쳐 보자. 예를 들어 교사가 “망나니 공주처럼.”이라고 말하면 학생 중 누군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돼!” “내 맘대로 해 버릴 거야.” 같은 말을 외치는 식이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망나니 공주 이야기

1. 먼저 12쪽까지 읽어 준다. 그런 다음, 읽어 준 이야기 속 앵두 공주의 자세로 그다음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한다. 자세를 곧추세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13~18쪽 까지 망나니 공주 이야기를 읽어 준다.

2.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에게 “앵두 공주님, 망나니 공주 이야기를 들으니 어때요?” 하고 인터뷰하듯 묻는다. 물론 이때 학생들은 앵두 공주의 자세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느낌으로 대답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망나니 공주 이야기

1. 이번에는 교사가 ‘할아버지’가 된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앵두 공주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어릴 때부터 함께했으니 조금 전보다 편안해질 것이다.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게 한다.

2. 24쪽까지 읽어 준 뒤, 역시 학생들에게 “앵두 공주님, 망나니 공주 이야기를 들으니 어때요?” 하고 묻는다.

자두네 할머니가 들려주는 망나니 공주 이야기

1. 75쪽까지 읽고 다시 학생들에게 “앵두 공주님, 망나니 공주 이야기가 어땠어요?” 하고 묻는다. 학생들의 대답을 이어받아서 망나니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 “그런데 왜 선생님들은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하고 물어본다. 학생들이 자기 의견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한다.

망나니 공주처럼, 왕자처럼 움직이는 조각상 만들기

1. 망나니 공주의 특징, 망나니 공주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종이에 하나씩 크게 적는다. 이야기에 나온 행동을 적어도 되고 상상해서 적어도 된다. 적은 종이는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칠판에 붙여 놓는다.

2. 그중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씩 정하고 그 특징이 드러나는 몸짓과 소리는 무엇일지 생각하게 한다. 그런 다음 4~5명씩 모둠을 정해, 모둠별로 자신이 생각한 동작을 하도록 한다. 한 명이 5초 정도 자기가 생각한 동작을 한 뒤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다음 사람이 자기 동작을 이어 한다. 마지막에는 모둠원들이 동시에 자기 동작을 선보인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흰바람을 타고 달리는 시늉을 하며 “이랴, 이랴!” 하고, 또 다른 아이는 상처를 치료하면서 “너 귀여워, 너 귀여워.” 하고, 찢레덤불에서 딸기를 따면서 “많이 따야지, 많이 따야지.” 하는 행동을 모두가 동시에 하는 것이다.

3. 왕자의 특징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발표해 본다. 공주와 왕자의 특징을 알아보고 몸으로 표현하면서 ‘아, 공주(왕자)가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은 감각으로 느껴 보는 활동이다.

망나니 공주는 어떤 왕이 되었을까?

왕이 된 망나니 공주가 어떤 일을 했을지 떠올려 보고 모둠에서 장면을 만든다. 물론 왕자의 뒷이야기를 장면으로 만들어도 된다. 모둠마다 다양한 장면이 나오면 한 장면씩 연습해 보고 연속 장면처럼 발표해 봄으로써 망나니 공주와 왕자가 왕국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상상할 수 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1. 가장 처음 해 보았던 ‘공주처럼 해야지, 왕자처럼 해야지’ 활동을 다시 하며 ‘망나니 공주가 그렇게 자랐다면 어땠을까’ 이야기를 나눠 보자.

2. 남과 비교하기보다, 남이 정해 주는 것을 따라하기보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자. 자기가 좋아하는 색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앞표지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적는다. 포스트잇을 많이 준비해 포스트잇마다 한 가지씩 적어서 색도화지 안에 붙인다. 친구나 선생님이 적어 주어도 좋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가능한 많이 적어 보자. 적은 것 중 3~5개 정도 골라서 발표한다.

공통점 찾기 놀이 하기

학생들이 둘로 나뉘어, 교실 양끝 벽에 붙여 선다. 한 사람이 앞쪽 가운데에 나와 선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찾은 자신의 특징을 크게 외친다. “나는 운동장에서 축구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같은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끝말 “좋아한다!”를 같이 크게 외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맞은편 줄로 옮긴다.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친 사람은 무조건 자기 맞은편으로 가면 된다. 외친 사람도 맞은편 줄로 가서 선다. 그다음 외치고 싶은 사람이 앞으로 나와 또 외친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른다!” 역시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외치면서 움직인다. “잘 부른다!” 이때 말하는 순서를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 먼저 나온 사람이 말하되 두 번 연속 말하지 않기로 정하고, 외칠 때는 누구나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누군가 말한 특징과 같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모두 “우아, 넌 특별해!”라고 박수를 쳐 준다.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재미있는 우리 반임을 말하고 활동을 마친다.